

지역 소식통

김제시 치매안심센터 '사랑에 썬터' 운영 간담회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경증 치매환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3일 경증치매환자 사랑에 썬터 운영을 위해 치매예방관리사, 자원봉사자 및 김제개인택시단위조합(조합장 김형국)과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랑에 썬터는 경증 치매 환자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치매 증상 악화를 방지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와 거리가 멀어 사랑에 썬터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 위해 매주 화, 수, 목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맞춰 치매환자 택시 승영서비스를 운영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여성새일센터 운영위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 여성새일하기센터는 지난 23일 10시 새일센터 직업훈련 강의실에서 여성취업 활성화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운영 지원을 얻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역 맞춤형 여성 취업 전문 기관으로서 집합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새일센터 팀장으로부터 2023년 새일센터 사업실적보고 및 2024년 구인구직 일자리 연계를 위한 사업설명과 앞으로 사업 진행에 관한 제언, 센터 운영과 취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

센터는 2024년 무료 직업교육 훈련 과정으로 헤어미용실무자 양성과정, 멀티사무원 양성과정, 단체급식조리사, 사회복지실무자과정 총 4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문화예술 발전 청사진 제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와 문화예술인 자문단, 업무 관련 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경과보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화

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191억원을 투입해 김제향교·동헌, 성산공민회와 인접한 교동 일원에 지상3층, 연면적 2,990㎡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전시·공연 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문화예술 공간 및 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으로 지난해 11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번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건축기획 업무수행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5월 착수했다. 시

는 오는 3월 용역을 완료하고 4월 중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민 공청회, 문화예술인 대표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규모를 산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김제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해소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이 지난 22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다.

김제시립도서관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

전북서 유일하게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 지닌 상 받아

김제시립도서관이 지난 22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도서관상은 지난 1969년 제정돼 도서관 사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해 공로를 치하하는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상으로 올해는 전국 약 1400개 도서관 중 김제시립도서관을 비롯해 단체 15기관이 수상했다.

김제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도서관(U·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실감형 체험관 조성 등 미래 지향형 도서관 인프라 구축, △시립도서관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

성사업 등 도서관 리모델링, △야간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운영(장애인 및 환우) 등 다채로운 도서관 운영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시장은 "우리 김제시립도서관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이번 한국도서관상 수상을 계기로 책 읽는 지역 사회 분위기와 열린 문화 공간 조성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립도서관 독서문화진흥팀 (540-4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에너지 절약하면, 인센티브 준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참여자 모집

완주군이 에너지를 절약해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난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에너지, 자동차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가정, 상업, 학교, 아파트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최소 5% 이상의 감축률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인센티브로 환산(1포인트당 최대 2원)해 연 2회(6월말, 12월말) 지급한다.

참여방법은 연중 상시 참여가 가능하며,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https://point.or.kr>)를 통해 가입하거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 자원순환과(063-290-2665)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분야는 매년 지역별로 해당 기간에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올해는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참여 기간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인센티브에 따라 매년 12월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지급은 가정은 연간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학교는 연간 최대 40만 원을 현금 또는 완주사랑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6,006명에게 1억2,700여 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봄 알리는 김제 지평선 복숭아 꽃 활짝

김제 최고품질 시설하우스 복숭아 생산지로 자리매김

김제 시설하우스에서 매서운 겨울을 이겨낸 복숭아 나무가 붉은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지난 23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김제 복숭아 재배면적은 90ha(100여 농가)로 이중 5ha(11농가) 정도가 시설에서 재배 중이다.

김제 시설 복숭아는 1월 상순부터 가온(난방)을 시작해 노지보다 40여일 빠른 2월 하순에 복숭아꽃이 만개한다. 시설 복숭아 대부분은 조생종으로 수확은 오는 5월 10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김제는 전국에서 복숭아를 가장 빠르게 출하하는 지역으로 명성이 높아 첫 출하되는 복숭아를 구입하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다.

특히 김제 복숭아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수확시기가 빠를 뿐만 아니라 지평선 평야의 비옥한 토양, 풍부한 일조량 등 복숭아 재배에 훌륭한 적지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복숭아 시설재배는 재배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저온, 우박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 있다. 노지재배와 비교해 생산량은 25% 정도 증가하고 2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되어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승중 기술보급과장은 "전국에서 찾는 김제 복숭아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올해에도 시



김제 시설하우스에서 복숭아 나무가 붉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범사업과 현장기술 지도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폐농약 집중 수거해 위탁 처리

남은 폐농약·보증기간 경과 농약 농가 골칫거리 해소

완주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내달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집중 수거한다.

지난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개봉해서 쓰고 남은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농가 수요에 맞춰 '폐농약 수거처리'를 매년 시행해 지역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미개봉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고,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남은 폐농약(일제, 액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은 처리 대책이 없어 그 대안으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에서 매년 수거 기간을 정해 위탁 처리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박스 또는 포대에 담아 다시 한번 밀봉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계팀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된 읍·면별 폐농약은 폐농약 전문 처리기관에 위탁해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폐농약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촌과 수자원 환경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완주군의 청정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중 수거 기간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